

북한을 움직이는 사람들(8)

김인구

조선일보 정치부 기자

19 93년 초 평양 주석궁(현 금수산기념 궁전으로 김일성 시신이 안치된 곳)의 한 회의실. 짙은 허스키의 목소리가 문밖까지 찌렁찌렁 울린다. 거의 반말조이다. 다른 사람의 목소리는 아예 들리지도 않는다.

“미국놈이 우릴 먹자구 달려든다는 걸 까먹었어? 군수 공장들 전력을 잘라서 도대체 어떡하겠다는 거야? 얼이 빠진 놈이 아니구서 억케 기판 짓을 해! 놈들이 총칼 들구 덤비는데 삽을 들구 막자는 거야? 영? 할 말 있으면 해봐!”

커다란 책상 앞에서 육중한 몸으로 이리저리 손가락질을 해대는 사람은 다름 아닌 주석궁의 주인이자 2,200만 북한 주민들이 하늘 같은 아버지로 떠받드는 김일성이다. 맞은편 반원형 회의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은 모두 눈 돌 곳을 모를 정도로 겁먹고 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아예 얼굴이 하얗게 질려 고개도 못들고 앉아 있다. 북한의 경제 살림을 맡는 총책임자인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 金達玄. 그는 김일성, 김정일의 허락도 받지 않고 군사 부문에 공급되던 전력을

민수 부문에 돌렸다가 되서리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이날 모임은 김일성의 주재 하에 1993년도 1/4분기 경제 생산을 총화(종합 결산)하는 자리였다.

김일성의 목소리가 다시 장내에 울린다.

“김달현이 뿐만 아니라! 일부 행정 경제 지도 간부들이 현 시기 당이 제시한 요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구 술덤병 물덤병 덤벼대구만 있어! … 미일 침략자들이 힘으로 우리 사회주의체제를 질식시키려구 덤벼드는 마당에 군수 생산 공장 전력을 잘라서 되겠어? 이건 군사냐 경제냐 하기 이전에 사상 문제야. …”

김달현은 이 회의 이후 간신히 자리는 보전했으나 1년이 채 가지 못한 1993년 말 부총리와 국가계획위원장 자리에서 쫓겨났다. 이날 모임은 북한 경제가 군수 부문과 민수 부문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북한 당국이 군수 부문을 최우선시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김달현의 목이 날아가던 바로 그날 북한은 3차 8개년계획(1987~93년)이 부분적으로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1994년부터

1996년까지를 완충기로 삼아 ‘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수 부문만을 중요시해서는 ‘흰쌀밥에 고깃국 먹으며 비단옷 입고 기와집에 살려는’ 주민들의 세기적 숙망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음을 의미한다.

그로부터 2년 반이 지난 4월 22일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부설 동아시아연구소 주최로 열린 한 학술회의장에서, 최근 2년 사이에 부쩍 바빠진 북한의 金正宇 대외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이 ‘수출 주도형 경제 전략’에 대해 열변을 토한다.

“북한 경제는 ‘수출 제일주의 정책’으로 나갈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자본주의 시장 진출을 위한 국가 단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과거 국가 차원의 求償(Barter) 무역 수준을 탈피해 시장 다변화와 교역 품목의 다양화도 꾀하겠다. 사업 상대자인 자본주의 국가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겠다...”

이날 김정우의 발언은 ‘무역제일주의’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었다.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언급됐다. 나진·선봉에 대한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 노력이나 수출 전략 품목의 집중 생산 강조 등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외 경제 관련 기구도 개편했다.

북한은 1995년 초 정무원 대외경제위원회 산하의 외자 유치 및 무역전담기구를 개편하

고 기존에 정무원 부·위원회가 관장해오던 주요 무역 상사들을 국제무역촉진위원회로 편입시키는 등 대외 경제 기관들을 재정비했다. 대외경제위원회를 정점으로 외자 유치 및 설비 수출입은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맡으며 무역 업무는 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맡는 등 체계를 단순화시킨 것이다.

1995년 3월 우리 기업의 대북 투자 유치를 맡아왔던 고려민족발전협회를 민족개발지도국으로 개편했으며 대외경제협력총국을 신설, 산하에 민족개발지도국과 나진·선봉지도국, 국제합영총국(회사), 국제협력국 등을 두어 남한 기업은 물론 외국 기업과의 합영·합작 및 투자 유치 사업을 총괄토록 했다.

나진·선봉지도국은 ‘조선경제개발총회사’라는 이름으로 이 지역에 대한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를 담당하고 있다. 국제합영총국(회사)은 조총련과의 합영·합작 사업을 전담하며, 국제협력국은 한국이나 조총련을 제외한 다른 나라와의 합영·합작 사업과 외자 유치를 맡고 있다.

대외경제협력총국은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부위원장 林泰德이 총국장을 맡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하부 기구로 추정되고 있다.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위원장 김정우)는 산하에 각종 플랜트 수출이나 해외 건설 지원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기구도 별도로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외적으로 ‘조선설비총회사’라는 이름

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은 광업부 산하의 흑색금속 수출입상사를 비롯해 정무원 부·위원회가 관장해오던 주요 무역 회사들을 대외경제위원회 산하의 국제무역촉진위원회로 이관시켰다. 1989년경 생산과 무역 부문의 이원화에서 오는 부조화를 해소하고 생산 설비 보수 자재와 원자재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당시 무역부가 관장하고 있던 무역 회사들을 정무원의 각 부·위원회 산하로 편입시켰던 것을 원래대로 환원시킨 것이다.

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80년대부터 자본주의 국가나 미수교국과의 무역 업무를 전담하던 비상설기구였으나, 과거 무역부가 수행하던 대외 무역 업무 전반을 관장함과 동시에 경제 원조를 요청하는 외교 활동까지 맡고 있다. 지난해 李成祿 등이 기구 관계자들이 일본, 미국을 방문해 쌀지원 및 나진·선봉 투자 유치에 나선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최근 북한의 대외 경제 부문에서 뛰고 있는 인물들은 김정일의 신임이 비교적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업무 성격상 한국이나 서방과의 접촉도 잦은 편이다. 또 이들은 비교적 합리적 사고에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의 개방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 이들은 행정부의 주요 직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李成大(대외경제위원장)

최근 들어 북한 정무원의 부장(장관)들 가운데서 누구보다 바빠 움직이는 사람이다. 그는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해 동분서주하는가 하면 남북 경협 문제에도 관여하고 있다. 지난 4월 2일 무역대표단을 이끌고 베트남으로 날아간 것을 비롯해 지난해부터 태국, 방글라데시 등 동남아 각국을 누비면서 경협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지난해 2월의 태국 방문과 4월 태국 경제대표단 초청시 쌀 수입 문제를 협의하기도 했다.

1996년 3월 평양사무소를 개설한 독일 동아시아협회를 통한 독일 기업의 대북 투자 유치에도 나서고 있으며, 러시아, 쿠바 등 기존의 사회주의 국가와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과의 경제 교류도 진두지휘하고 있다. 1996년 1월 초에는 경제대표단을 이끌고 요르단에서 진행된 '77그룹 제8차 아주지역각료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

1992년 12월 북경 주재 무역참사관으로 근무하다가 김달현의 후임으로 일약 대외경제위원장에 올랐다. 당시 대외경제위원회는 무역부와 대외경제사업부의 기능을 통합, 상설 부서가 됐다. 북경의 무역참사관은 차관급이긴 하지만 대외 무역을 총괄하는 자리에 바로 오른다는 것은 의외였다. 김정일의 각별한 신임이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승진이다.

그의 능력이 발휘되기 시작한 것은 무역부

부부장이던 1988년 김달현이 무역부장으로 부임하면서이다. 두 사람은 4년 가까이 호흡을 맞춰 북한의 대외 경제 문제를 추진해나갔다.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설치와 대우 남포공단 조성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1992년 7월에는 당시 김달현 부총리의 서울 방문에 동행, 우리 경제 현실을 직접 보고 가기도 했다.

1943년 평북 신의주에서 태어나 1980년 3월 식료상사 지도원으로 대외 경제 부문에 발을 들여 놓았다. 80년대 초반 경제 시찰 혹은 무역 업무로 3 차례에 걸쳐 일본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본격적인 대외 경제 전문 관료로 발돋움했으며 1987년경 무역부 부부장에 기용됐다.

金正宇(대외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겸 대외 경제협력추진위원장)

서방을 상대로 한 외부 활동이 가장 많은 북한 개방 정책의 '전도사'이다. 1994년 제네바 핵협상 타결 이후 1995년 4월까지 북미 경수로 전문가 협상에 북측 대표로 참여했으며, 이후 최근까지는 나진·선봉에 대한 서방 기업의 투자 유치와 북한의 경제 정책 홍보를 위해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있다.

지난해 9월 이후 북경, 연길, 미국 등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지난 4월에는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부설 동아시아연구소 주최

학술회의에도 참석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북한의 개방 의지를 조금씩 흘려 화제를 몰고 다녔다. 특히, 이번 조지워싱턴대학 학술회의에서는 북한이 마치 '주체 경제'를 수정할 뜻이 있는 듯한 발언을 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적지 않은 파문이 일었다. 북한은 '남조선 언론들이 왜곡 보도'를 했다며 예정된 김정우의 기자 회견을 돌연 취소하는 등 한바탕 소동을 벌였으며, 이로 인해 한국 언론의 북한 관련 보도에 대한 신뢰성만 떨어뜨리게 했다.

재미동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비교적 괜찮은 편이며 일부에서는 김달현과 함께 차기 총리 후보로도 거명하고 있다. 김일성에게 나진·선봉 개발에 대한 의지를 심어준 장본인이 두 사람이라는 이유에서이다. 남한 기자들에게 남북 경제에 대한 전망을 자신있게 피력할 정도로 상부(김정일)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42년 11월 양강도 신파군(현 김정숙군)에서 태어나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했다. 1975년 제2설비수입상사 과장을 시발로 1979년 1월에는 제1설비상사 사장을 맡았으며, 1982년 6월 대외경제사업부 부부장으로 기용된 이래 줄곧 대외 경제 사업을 담당해왔다. 1992년 1월 나진·선봉 투자 유치에 역점을 둔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장을 맡았다.

1990년 9월부터 시작된 남북고위급회담 경제 부문 대표로 참석했으며, 교류협력분과 위원회와 경제교류공동위원회 북측 위원장도

맡았다.

李成祿(대외경제위원회 부위원장)

30년 넘게 무역 관계 업무를 보아온 대외경제 전문 관료이다. 70년대부터 무역대표단을 인솔, 세계 각국을 돌아다녀 일찍부터 자본주의 경제에 눈 뜬 것으로 전해진다. 대외경제 분야에서 그의 이력도 다양하다. 국제무역촉진위원장(현재는 조원명으로 교체), 고려민족산업발전협회(高民發·민족발전지도국으로 개명) 회장, 조선·아시아무역촉진협회 회장, 韓日우호친선협회 부회장 등이다.

1994년 말부터 高民發 회장으로 북경 등지에서 남한 기업들의 대북 투자를 비롯해 대외경협 실무 창구를 맡아 주목받기 시작했다. 고함물산의 張致赫 회장이나 한국선명회 李濶求 회장 등 수많은 남한 인사들과 접촉하면서 실속있는 투자 유치에 더 관심을 보였다. 이는 전임 최정근 회장이 1년 6개월간의 재임 기간 중 무모한 대규모 투자 유치에 매달려 단 1건도 성사시키지 못한 사실을 감안한 것이라는 후문이다.

특히, 1994년 9월 우리 기업체 북경대표들에게 초청장을 건네주면서 “남한이 받아만 준다면 서울을 방문해 북쪽의 투자 여건을 소개해주겠다”고 말하는 등 남한 기업의 대북 투자 유치에 상당히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1995년 우리 기업의 방북 초청장 발

급시 거액의 수수료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북한으로 소환됐다는 설도 있었다. 그러나 5월 말 국제무역촉진위원장 자격으로 일본을 상대로 쌀원조 외교에 나서, 건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1934년 양강도에서 태어나 인민경제대학을 졸업하고 인근의 자강도에서 지도원 생활을 하다가 1963년 무역부 국장으로 기용되면서 대외 경제 업무에 발을 디뎠다. 1978년 무역부 부부장으로 승진했으며, 1982년 국제무역촉진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1990년 위원장에 올랐다. 1992년 말 무역부와 대외경제사업부가 대외경제위원회로 통합된 이후 부위원장으로 기용됐다.

그는 1984년부터 5 차례에 걸쳐 진행된 남북경제회담 북측 대표로 참석하기도 했다.

金文成(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서기장)

최근 나진·선봉 지역 외자 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나 상담 활동에 가장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인물이다.

나진·선봉 개발을 위해 설립한 조선경제개발총회사(총사장 林泰德)의 부총사장도 겸하고 있는 그는 1996년 2월 호놀룰루에서 하와이대학 동서문화센터가 주최하는 경제포럼에 참석했다. 이에 앞서 1월 12일부터 북경에서 한 재미교포를 상대로 나진·선봉 지역 투자 상담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해 북경, 연

길, 뉴욕 등에서 열린 나진·선봉 투자설명회에도 참석해 한국, 미국, 일본 등 서방 기업의 활발한 진출을 호소했다.

그는 그동안 김정우나 임태덕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었으나, 오히려 활동 범위가 훨씬 넓다는 게 그를 접촉한 국내 한 기업 관계자의 지적이다. 그는 북경 등에서 우리 기업 관계자들과 나진·선봉 투자 상담도 벌였으며, 대북투자조사단의 나진·선봉 방문시 안내를 맡기도 했다. 중국의 조선족 기업인들을 상대로 한 소규모 무역에도 그는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50대 초반으로 자본주의 경제에 대해서도 상당한 지식을 가졌으며, 다른 대외 경제 간부들에 비해 합리적이고 진취적 사고를 지녔다는 평을 듣고 있다. “대화를 할수록 공산주의자라는 느낌이 별로 들지 않을 정도로 개방적이었으며, 영어 실력도 비교적 수준급”이라고 한 재미교포는 전했다.

林泰德(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부위원장)

1994년 11월 정부의 경협 활성화 조치 이후 우리 기업인들을 가장 많이 만났던 인물이다. 기업인 나진·선봉 방문 1호로 기록된 쌍용을 비롯해 삼성 등 기업 투자 조사단의 방문시 북한측 대표로 사업 설명과 안내를 맡았다.

그를 만나본 한국 기업인들은 “林은 비교적

영어도 잘하고 국제 감각과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상당히 합리적인 인물”이라고 평가한다. 우리 기업인들과 투자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화제는 일체 꺼내지 않고 시종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등 상대하기에 별로 어색함이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냈다고 한다.

1992년 2월 두만강 지역 공동 개발을 위한 계획관리위원회(PMC) 제1차 서울회의에 참석했다. 같은 해 7월 김달현 당시 부총리를 수행해 서울을 다시 방문한 적이 있으며, 남북 대화에도 몇번 참석해 일찍부터 한국내 잘 알려져 있던 인물이다.

국장급 실무자였던 그가 본격적으로 한국 기업인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94년 1월 나진·선봉의 본격적인 개발을 위해 신설된 ‘조선경제개발총회사’의 총사장을 맡아 기업들의 대북 투자 유치를 위한 비공개 접촉을 적극 추진하면서부터였다. 김문성 서기장의 활동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최근에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나진·선봉의 투자 상담에 관한 한 그를 따라갈 사람이 없다는 게 그와 만났던 우리 기업인들의 지적이다. 지난해부터 대외경제협력총국장도 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1946년 평양에서 태어나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하던 1975년 정무원 대외경제사업부 지도원으로 관료 생활을 시작한 이래, 20년 동안 대외 경제 부문에서만 일해온

테크노크라트이다. 1982년 대외경제사업부 과장을 거쳐 1990년에는 대외경제협력추진 위원회로 자리를 옮겨 서기장을 맡았다가 부 위원장으로 승진했다.

金連玄(前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
現 2·8비날론연합기업소 지배인)

지금은 지방의 공장 책임자로 내려가 있으나, 북한 경제가 '개방'으로 선화할 경우 어떤 자리로든 복귀가 확실시되는 인물이다. 1980년 후반부터 1993년 12월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에서 해임될 때까지 북한의 경제를 장악했던 전형적인 대외 경제통이다.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고 1977년 과학원 부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능력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1980년 초반까지 폴란드, 불가리아, 구소련, 체코, 유고 등 동유럽을 수차례에 걸쳐 방문하면서 당시 북한 경제가 모델로 삼고 있던 동유럽의 과학 기술을 견학했다. 1984년 姜成山 총리를 수행, 중국을 다녀오기도 했는데, 당시의 인연이 1992년 12월 姜成山이 총리로 재기용되면서까지 이어졌다.

1987년 3월 金渙의 뒤를 이어 화학 및 경공업위원장을 맡았으며, 1988년 2월 洪成南으로부터 국가계획위원장의 바통을 넘겨받았다가 4개월만에 다시 洪에게 인계하고 대외경제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같은 해 10월 무역부장까지 겸해 '대외 경협'이라는 해

법으로 총체적 난국에 빠진 북한 경제를 회생시키는 총대를 매게 됐다.

1992년 12월 다시 국가계획위원장에 기용되면서 대외경제위원장 자리를 李成大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대외 경제 업무에서 손을 뗐다. 이는 당시 그가 주관한 남북 경협이 '조선노동당 간첩 사건'(1992년 10월)으로 주춤했던 것과 연관있다는 추정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는 남북 경협에 상당한 의지를 보였다. 1991년 통일교 문선명 교주를 자신의 명의로 초대했는가 하면 김일성·문선명 회담시 배석해 투자 유치 문제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1992년 초 대우 남포공단 합작 공장 사업에도 깊숙이 관여했으며, 이를 계기로 같은 해 7월 남북 경협 문제를 협의차 서울을 방문, 우리 산업 시설을 둘러보기도 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1993년 군수 부문의 전력을 민수로 전환한 것이 문제가 되어 3차 7개년계획 실패의 '희생양'으로 현직에서 물러나 함흥의 '2·8비날론 연합기업소' 지배인으로 내려갔다. 최근 북한을 자주 드나드는 재미교포 사회에서 그는 차기 총리로 기용될 것이라는 설이 흘러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또한 김일성의 인척이라는 설도 있다.

孔鎭泰

10년 넘게 정무원 인민봉사위원장을 지내

다가 지난 3월 사망한 백화룡의 후임으로 나진·선봉시 행정경제위원장(시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20여 년간 대외 경제 업무 경력을 가진 현직 부총리 겸 장관을 나진·선봉시 책임자로 임명한 것은 이 지역 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나진·선봉시를 정무원 직속의 도급 행정 구역으로 격상시켰으며 앞으로 시행정경제위원장의 초창장만으로도 외국인들이 이 지역을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孔子 일본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으며, 일본 경제계와 교분이 두텁다는 점도 나진·선봉 시장으로 기용하게 된 배경의 하나가 아닌가 여겨진다. 북한은 최근 나진·선봉 투자 유치 창구를 조총련계 조일수출입상사로 단일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북일 수교 협상을 앞두고 동아시아무역위원회 등 일본 경제계와 긴밀한 물밑 접촉을 갖고 있다.

孔子는 평남에서 태어나 1964년 대외경제총국장을 시발로 대외 경제 업무에 발을 디뎠다. 1971년 대외경제위원장, 1980년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을 거쳐 1985년부터 인민봉사위원장으로 일해왔다.

이밖에 남북고위급회담 당시 북한 총리를 지냈던 延亨默(자강도당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이나 延의 전임자인 李根模(함북도당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북한 화학 분야 최고

전문 관료인 金煥 부총리 겸 화학공업부장 등도 '개방파'로 지목되는 인물들이다. 이들도 북한의 대외 경제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金煥은 한때 지나칠 정도의 개혁적인 사고로 일관해 김일성의 눈밖에 나 권력 서열에서도 뒤로 처졌으나, 항일혁명투사 김혁의 아들이라는 점과 '김정일 맹종파'라는 등의 이유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소설 '암격정'의 저자 魏超 洪命燾의 손자인 洪錫亨 국가계획위원장과 鄭松南 대외경제위원회 부위원장도 대외 경제 업무에 밝은 인물이다. 특히, 鄭松南은 대외경제사업부가 대외경제위원회로 통합되기 전 부장을 맡는 등 오랫동안 대외 경제 관련 부서만을 거치면서 비동맹 국가와의 경제 협력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경협도자

經協 勞作

ART가이



美·北 미사일 회담 우리 북조선이 리의를 많이 챙겨야 할텐데...



대량살상 무기를 담보로 이익을 챙긴다면 비도덕적 행위가 아닐까요?



원수의 무리에게는 도덕이 뭐고 없소. 한껏 실리를 취해야죠



남한도 MTCR (O카일 수출 통제 체제)를 무시하고 미사일을 개발하면 북한도 좋은일이 없을텐데요



남한도 미국과 협상해 수출 하세요. 그러나 성능은 우리를 못따라올테니



하하하 지금은 전자시대요 전자기술이나 공여준이 누가 우위인지 잘 알텐데!



잡잔! 무기란 많이만 있다고 좋은게 아니요 우발적 발사. 자폭등 서로 이로울게 없어요!



미국과 담판은 우리나라 남조선은 위험한 흥정이라는데 어떻게 가만 앉소?



그러니까 위험. 협상등 변수를 쓰지 말고 당사자 회담으로 실마리를 푸는게 좋지 않을까요



우리체제상 충분히 견도할 시간을 뒤 보세요

미적거리면 그만큼 발전이 늦어질 뿐인데